
2021/22년 라오스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출장결과보고서

2022. 8. 23. - 27.

 한국개발연구원

I.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라오스 정부는 국가혁신체계 구축 및 지식기반경제 전환을 위해 ‘라오스 전자정부 개발계획(E-Government Development Plan) 2013~2020’, ‘2025년을 향한 ICT 전략 계획’, ‘국가 ICT 정책 2015-2025’을 수립하는 등 동 분야 육성에 정책적 지원 실시
 - 그러나 전자정부 실행역량 부족, 전문인력 부족, 전자정부 관련 법령 미비, 국제표준 준수 마련필요 등의 해결과제 보유,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 수립 경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지원을 요청
 - 위와 같은 사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하여 아래 3개 세부주제에 대해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함.

< 2021/22년 라오스 KSP 사업 구성 >

사업 대주제		
라오스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지원 (Knowledge Exchanging on Policy Making for e-Government Development)		
세부주제	주제명	연구진
주제1	라오스 전자정부 현황 평가 및 진단 (Assessment of e-Government System and Strategic Plans for Lao PDR)	문명재(연세대)
주제2	전자정부 혁신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for e-Government Transformation in Lao PDR)	김병준(국민대)
주제3	전자정부 인적역량 개발 및 강화 방안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e-Government in Lao PDR)	김현준(고려대)

- (추진 경과) 현지 세부실태조사 출장을 통한 협력국 현지 여건 조사 및 연구 자료 보완(“22.7.5~9), 이후 중간보고회를 통한 연구 중간 결과 협력 부처 측과 논의(“22.8.4), 정책실무자연수를 통한 협력부처 관계자 한국 유관기관 방문 및 역량강화 도모(“22.8.15~19)
 - 연구 최종 결과를 라오스 고위급 정책 결정자와 공유하고자 본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출장을 실시함.

II. 출장 개요

- 기간: 2022년 8월 23일(화) ~ 27일(토) [한국 출·입국일 기준]
- 출장지: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 루앙프라방(Luangprabang)
- 주요 활동사항
 - **(최종보고회)** 협력부처와 유관 기관 관계자 대상 사업의 최종결과 공유 및 향후 정책이행 방안 논의
 - **(고위정책대화)** 협력국 고위정책결정자에 핵심 정책제언 전달 및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노력 당부
 - **(역량강화 세미나)** 기술통신부 산하 북부지역 기술통신부 공무원 대상 한국 연구진들의 한국 발전경험 역량강화 세미나 실시
 - **(사업 모니터링)** 협력부처와 현지전문가 대상 종료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만족도와 정책제언 이행계획, 잠정 성과 등을 모니터링
 - **(사전협의)** 2022/23년 KSP 협력부처인 라오스 산업통상부 측과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의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세부주제 및 성과 목표를 논의

출장자(총 7인)

#.	성 명	소속 및 직위	역할
1	안양호	前 행정안전부 제2차관	수석고문
2	권경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실장	사업책임자
3	민소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사업관리자(정)
4	김수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사업관리자(부)
5	문명재	연세대학교	주제1 과제연구자/ 선임연구자
6	김병준	국민대학교	주제2 과제연구자
7	김현준	고려대학교	주제3 과제연구자

III. 출장 일정

날짜	시간	일정	비고
08월 23일(화)	09:30-12:55	인천-비엔티안	QV924
	14:30-16:00	종료평가 인터뷰(현지전문가)	
		사전점검회의	
	16:30-20:00	주라오스대한민국 대사관 면담	
08월 24일(수)	09:00-11:40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14:00-16:00	22/23 라오스 KSP 사전협의	
	16:00-18:00	종료평가 인터뷰(사업관계자)	
08월 25일(목)	08:00-09:00	신속항원검사	
	12:05-16:20	비엔티안-방콕-치앙마이 이동(권경덕)	
	12:35-13:20	비엔티안-루앙프라방 이동	
	17:00-18:00	역량강화 세미나 사전점검회의	
08월 26일(금)	08:30-11:30	역량강화 세미나	
	14:00-14:45	루앙프라방-비엔티안 이동	
	17:00-18:00	종료 회의 - 출장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사항 점검	
	23:35-06:05(+1)	비엔티안-인천	QV923

IV. 주요 활동 내용

1. 현지전문가 종료평가 인터뷰

□ 일시 및 장소: '22년 8월 23일(화) 14:30~16:00, Crowne Plaza

□ 참석자: 김수민 연구원(KDI), Alay Phonvisay(주제2 현지전문가)

□ 주요 논의 내용

- 본 사업이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이후로 종료됨에 따라 현지전문가 대상 종료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며, 사업수행과정, 사업만족도 등에 대해 면담하고자 함.
- **(사업수행과정)** KSP 사업관계자가 전반적으로 라오스 현황을 이해하고 있어서 만족스러웠으며, 특히 한국 연구진과의 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연구를 위한 업무 분배가 명확하고 적당했다고 생각함, 사업관리자 역시 메일과 메신저 회신이 빠르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하고자 함.
- **(현지전문가 참여도 확대)** 현지전문가 풀(pool)을 늘리고자 한다면 KSP 자체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며, 계약 금액도 다소 상승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이해도)** 한국 연구진의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적절하였으며. 라오스 관계자들도 정책실무자연수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음.
- **(사업홍보수준)** 라오스는 TV보다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확산이 많아 향후 이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함.
 - 사후 홍보로 정책요약서 등을 작성해서 올린다면 본 KSP 사업과 차년도 사업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유익할 것으로 판단, 라오스 내에서는 KSP 사업 뿐만 아니라 KDI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정보 접근이 더욱 어려웠다고 생각함.
- **(고위급관계자 관심도)** 코로나 이후 특히 고위급 정책관계자의 전자정부 관련 관심이 높아졌으며 전자정부센터 예산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기술적 발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만족도 및 인식 변화)** 정책실무자연수 시 한국 유관 기관 방문을 통해 배운 것이 많으며, 최종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KSP 사업 차별성)** KSP 사업 자체의 차별성보다는 주제의 차별성이 있었으며, 전자정부 주제가 흥미롭고 유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함.
- 고위급 관심은 있으나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부족하며, 기존 시스템을 다른 부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주라오스대한민국 대사관 면담

- 일시 및 장소: '22년 8월 23일(화) 16:30~20:00, 주라오스대한민국 대사관
- 참석자: 안양호(수석고문), 권경덕 실장, 민소연 연구원, 김수민 연구원(이상 KDI), 문명재 교수(연세대), 김병준 교수(국민대), 김현준 교수(고려대), 임무홍 대사, 박성인 서기관, 유병석 참사관(이상 주라오스대한민국 대사관), 김필성 관장(KOTRA 비엔티안 무역관)
- 주요 논의 내용
 - **(2021/22 라오스 KSP 사업 소개)** 본 KSP 사업은 라오스 기술통신부 수요를 바탕으로 착수하게 되었으며,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지원을 주제로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연수 등 사업 주요 단계를 실시해 옴.
 - 세부실태조사 출장 시 기술통신부 및 타 부처, 관련 산하기관과 연구자료 조사를 위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라오스 중부 지역 기술통신부 관계자와 역량강화세미나도 함께 진행하여 지방 전자정부에 관한 현황도 파악하게 됨.
 -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소개)** 동 보고회는 사업 주요 단계 중 마지막으로 한국 연구진들의 정책 제언을 협력부처 및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와 공유하고, 특히 고위급 정책 결정자와 본 사업 결과를 논의함으로써 동 사업을 통한 정책 시사점이 향후 라오스

정책 수립에 반영되게 함에 목적이 있음.

- (한-라 협력방안 논의) 임무홍 대사는 보건 분야에서 이전에 다수의 전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오스 내 보건 분야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함.
- 본 사업의 최종 연구 결과물과 관련 사업 성과의 현지 파급 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KDI는 주 라오스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의 최종보고회 참석을 요청, 이에 임무홍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답변함.

< 사진 >



주라오스대한민국 대사관 단체 기념 사진

3.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 일시 및 장소: '22년 8월 24일(수) 09:00~11:40, Crowne Plaza
- 참석자: 안양호(수석고문), 권경덕 실장, 민소연 연구원, 김수민 연구원(이상 KDI), 문명재 교수(연세대), 김병준 교수(국민대), 김현준 교수(고려대), 임무홍 대사, 박성인 서기관(이상 주라오스대한민국 대사관), 김필성 관장(KOTRA 비엔티안 무역관), Santisouk Simalavong 차관(라오스 기술통신부), Thavisak Manodham 센터장, Somphayvanh Sengsurinha 부센터장 외 라오스 전자정부센터 및 산하기관 관계자 약 30명
- 주요 논의 내용
 - (전자정부센터 발표) Thavisak Manodham 센터장은 개회사에 앞서 2021/22년 라오스 KSP 사업 경과를 설명하고자 함.
 - (KSP 소개) 라오스 전자정부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본 KSP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동 사업은 지식 공유, 정보 수집, 정책 제언을 목표로 하고, 라오스가 직면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데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주어 상당히 유익함.
 - (연구 진행경과 소개) 지방 정부 차위에서의 전자정부 현황 자료 취합을 통해 3개 세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동 보고회에 앞서 중간보고회와 정책실무자연수를 실시하고, 본 최종보고회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최종 제언들을 공유할 예정
 - (활용 계획) 전자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계획안 작성 시 활용 예정이며, 현재 라오스 정부는 전자정부 및 ICT 분야 정책 발전에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2025년을 향한 ICT 전략 계획', '국가 ICT 정책 2015-2025'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음.
 - (개회사) 안양호 수석고문은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 사업의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한국 연구진, KDI, 현지전문가, 전자정부센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동 보고회를 통해 제시한 정책 제언이 실제 라오스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

- **(환영사)** Santisouk Simmalavong 차관은 안양호 수석고문, Thavisak 센터장, 한국 연구진들, KDI, 관련 부처 관계자 등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포함.
 - 라오스는 5개년 단위의 전자 정부 계획이 있으며, 전자 경제, 사회, 정부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PPP), 정책 개발, 자원 발굴 등을 통한 신규 인프라 설립이 필요함.
 - '2021 UNDP 디지털 성숙도 평가'를 통해 라오스는 전자 정부 시스템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으며, 라오스의 부족한 점을 바탕으로 향후 보완 사항이 KSP 보고서에 담겨 있으니 전자정부센터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처가 참고하기를 희망
 - 현대화된 정부를 위해서는 이로 향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을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문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수립이 필수적임.
 - 2025년까지 대국민 서비스, 디지털 ID 발급 등의 계획이 있으며, 문서 전자화, 절차 간소화, 감사 도입을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한 라오스 민간 부문, 학계의 활성화 효과도 기대
- **(주라오스대한민국 대사관 축사)** 임무홍 대사는 본 KSP 사업이 한-라 유대감을 제고하고, 라오스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동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KSP 사업이 라오스에 더욱 정착이 되기를 희망함.
 - 라오스는 향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허브 국가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KSP 전자정부 관련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판단,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
- **(주제1 발표)** 문명재 교수는 전자정부는 인프라, 인터넷 보급률, 통신 상태 등 여러 시스템과 관련이 크며, 경제, 사회, 정부 모두 디지털화 하는 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이며 라오스에 필요함을 언급함.
 - **(연구 방법)** 문헌 조사, 설문, 인터뷰,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라오스 전자정부 현황)** UN 전자정부 설문에 의하면 라오스는 167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 특히 온라인 서비스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며 이는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임.
- 통신 인프라도 여전히 낮으며, 라오스 내 개선 노력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지수가 낮고, 인적 자원의 경우 0.6점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
- 라오스는 최근 ICT 인프라 확산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특히 핸드폰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고,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10%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며 인터넷 보급률 역시 급진적으로 성장
- 라오스 정부는 ‘G-net’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한 바 있으나 지방 정부에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음.
- **(SWOT 분석)** 강점은 정책 관심도, 정책 의지, 뚜렷한 목표이며, 약점은 재정적 역량, 국민 디지털 숙련도, 인터넷 보급으로 판단됨.
- 전자정부에는 G2G, G2B, G4C 등의 다양한 영역이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최우선 순위는 G2G, 최후 순위는 G4C 서비스라고 응답함.
- G4C를 가장 중시하는 한국과 상반된 결과이나, 전자정부 수립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정부 부처 내 서비스를 완전히 갖추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 국가 재정 관리 시스템, 조세 시스템, 부처 간 통합 정보 시스템, 교육 시스템, 대국민 온라인 포털 순으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 전자정부 수립 계획과 현재 정보 수준 간의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함.
- 주요 제약 요인으로는 재정, ICT 인프라, 전략, 인적 자원, 정책적 지지의 부족이 논의됨.
- **(한국의 경험)** 전자정부 관련 기관과 법을 갖추기까지 50년 동안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초반에는 11개 주요 주제를 설정하여 접근하였고, 국가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이 그 중

하나였는데 현재 라오스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정책 제언)** 전통 문화를 존중하는 신규 전자정부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선의 시작점에 있으니 아래의 사항들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 기업 설계, 정보 시스템을 우선하여 마련, 혁신을 위한 도구로 전자정부 이니셔티브 활용, 5개년 계획 구체화, 참여형 전략 마련, 국내외 재원 확보, 전자정부센터 역량 및 부처 영향력 강화, 전자정부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등이 있음.
- **(주제2 발표)** 김병준 교수는 라오스 전자정부 실정이 한국의 시스템 및 경험과 다수 부합함을 전반적으로 언급함.
 - **(라오스 현황)** 2005년 국가 ICT 정책을 시작으로 무선통신, 전자거래, 전자기기, 사이버 범죄 관련 법령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개선 노력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전자 정보 보호법이 신설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문제 진단)** 법령이 다소 혼재되어 있으며, 전자정부 계획 실행을 위한 지지가 부족하고, 해당 법과 기관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자원 역시 부족하며, 이는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 전담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임.
 - **(한국의 경험)** 한국은 전자정부를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국민 의견 반영이 어려웠으나, 민주화 운동 이후 시민 참여를 장려하여 민간의 역할을 확대시킴.
 - 전자정부는 단순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혁신이기도 하며, 한국의 경우 차세대를 위한 디지털, 정책 개혁을 현안으로 설정함.
 - 전자정부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절차의 변화임을 인지해야 하고, 공개적이고, 수요 기반의 접근 필요함.
 - 전자정부 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이미 존재함으로 포괄적인 법령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운영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문서 전자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책 제언) 제도적 틀 마련 및 법제화를 위한 컨센서스를 도출해야 하고, 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한 디지털 컨트롤 타워 설립, 공무원 간 디지털 의식 확산 등을 제시함.
- (주제3 발표) 김현준 교수는 라오스는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분명한 체계가 부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을 통해 효과적인 전자정부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
- (한국의 사례) 한국은 아래 방법 1과 2를 혼용하여 전자정부 전환을 이루었으며, 2000년대부터는 방법 3을 중점으로 전환하였음.
 - (방법 1) ICT 분야 공무원 대상 전자정부 계획 및 도입을 위한 ICT 전문가 양성,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할 공무원 대상의 기본 ICT 역량 교육, E-러닝 플랫폼을 통한 ICT 교육 실시
 - (방법 2) ICT 산업 종사자 대상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교육, IT 전문가 교육, 변화하는 시대, 시장, 사회에 맞추어 ICT 전략 변경
 - (방법 3) 대국민 ICT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전국민 대상 ICT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교육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ICT 역량 강화, 2001년부터 교사의 33%를 대상으로 매년 ICT 교육 실시
- (정책 제언) 공무원 대상 ICT 역량 강화 (난이도 별로 세분화) 기능을 갖춘 공공기관 설립, 장기 ICT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전략 수립, 산학, 정부-산업 간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ICT 능력 상향평준화 교육, 전자정부 도입 시 모두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실시 등을 제안함.
- (질의응답) Thavisak Manodham 센터장은 최근 라오스 총리가 디지털 정부 법령을 공식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야함을 언급하며, 본 발표의 제언들을 앞으로 각 부처에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인지 의견을 부탁함.
- (외교부) 현재 디지털 전환을 시도 중이나 디지털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큼.

- 전환을 위한 부처 내 컨센서스가 부재하며, 재정적 한계도 있어 주로 원조나 투자를 통해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며, 법령 업데이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하여 고위급의 관심은 있으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상이한 상황임.
- **(교육 및 스포츠부)** 인적자원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라오스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ICT 센터, E-러닝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으나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자들이 아직 종기와 칠판에 더 익숙하여 전환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현재 교육부에서 전자정부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본 KSP 최종보고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도 ICT 교육 도입 제언을 면밀히 고려해볼 예정임.
 - 전자정부를 위해서는 학교 건물 설계부터 재구축해야 하는데, 전기, 컴퓨터 등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교육부 자체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
- **(에너지광물부)**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는 모든 부처에서 고질적으로 15년 간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기간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자정부를 수립하지 못했다고 생각함.
 - 중앙 정부의 강제성이 크지 않은 것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며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제약 요인이라고 판단됨.
 - 전자정부 전환보다는 '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데, 새로운 기회를 위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함.
 - 정책, 인프라, 인적자원 등의 영역에 맞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부처별 역할을 분장해주어야 하며, 특히 자원이 한정적이므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함.
 - 정책과 인프라가 갖춰지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공무원 채용 시 ICT 사용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총리실) 여러 지방 정부에서 ICT 인프라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ICT 담당 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노후 ICT 인프라에 대한 업데이트 등이 필요함.
- 향후 한국 연구진이 라오스 ICT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최신화를 위한 제언을 해줄 수 있길 희망

< 사진 >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기념 사진

4. 2022/23 라오스 KSP 사전협의

- 일시 및 장소: '22년 8월 24일(수) 14:00~16:00, Lao Plaza Hotel
- 참석자: 남보라 팀장, 민소연 연구원(이상 KDI), Chansamay Pravongviengkham 국장, Soulingna Sisomnuck 부국장, Kertmamy 직원(이상 라오스 산업통상부 국제협력 및 지적재산권 부서)
- 주요 논의 내용
 - (2022/23 라오스 KSP 사업) 본 사업은 재위탁사업으로 KDI는 관리 측면을 담당, 실제 사업 수행기관은 추후에 선정될 예정이며 이후 관련 결과를 공유할 예정임.
 - (세부주제 확정) 이전에 제출한 사업수요조사서 상 세부주제를 1) 농업종사자 및 지식재산권 전담 인력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2) 라오스 현지 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자원 조사, 3) 라오스 로컬 브랜드 개발과 관련 상표 및 단체상표 디자인 및 등록으로 잠정 설정함.
 - Chansamay Pravongviengkham 국장은 단체 상표, 특히 관련 내용에 보다 집중하기를 희망하며, 1) 라오스 상표법 제도 개선 자문, 2) 라오스 농산품의 해외 상표 출원을 위한 자문, 3) 라오스 농산품의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위한 자문으로 제안, 이에 KDI 측도 동의함.
 - 특히,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의 효율적 보호 방안, 해외 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브랜드 개발, 마크 등의 내용 포함, 세부실태조사 시 현지 농민 대상 또는 기관 대상 지리적 표시, 상표 등록 관련 교육 제공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향후 일정 협의) 추후 동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세부주제에 대해 산업통상부 측의 공식 확정을 요청함.

5. 사업관계자 종료평가 인터뷰

- 일시 및 장소: '22년 8월 24일(수) 16:00~18:00, Crowne Plaza Hotel
- 참석자: 김수민 연구원(KDI), Thavisak Manodham 센터장, Kittisack Pasomsouk 사무관(이상 라오스 전자정부센터)
- 주요 논의 내용
 - **(사업수행과정)** 대면이 아니라 메신저 또는 메일로만 소통해야 해서 간혹 내용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였으며, 라오스와 한국 연구진 간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추가 플랫폼 등이 구축되기를 희망함.
 - KDI 사업책임자, 한국 연구진이 라오스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양하게 제시해주었고, 적절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함.
 - **(사업참여도)** 사업 참여 기회는 관계자 전체에게 충분히 주어졌으나, 예산 관리 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현지에 보다 주도권을 주길 희망함.
 - **(사업홍보수준)** 적절히 홍보되었다고 생각하며, 동 최종보고회도 다양한 부처에서 참석했고 질문도 많았음.
 - **(고위급관계자 관심도)** 전자정부는 고위급 관계자 관심이 뚜렷한 주제이며, 총리실 주도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실제로 최근 총리실과 함께 전자정부법 및 기준 등을 해결하려고 협력하고 있음.
 - KSP 사업과 별개로 이전부터 추진하던 전자정부법이 최근 입안되었고, 관련 법령이 생겼으니 KSP 정책제언을 추후 반영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업만족도 및 인식 변화)** 전자정부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재점검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통일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라오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KSP 사업의 지식 공유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며,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과 전자정부 관련 논의 시 초기 단계에서 한국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함.
 - 사업 기간이 보다 늘어나기를 희망, 시작 단계에서 연수를 통해 한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현지 상황의 차이를 정책실무자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비교를 통해 시작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KSP 사업 차별성) 한국은 아시아 국가이다 보니 라오스의 상황을 유럽 국가보다 더 잘 이해함.
- (정책제언 이행 및 후속사업 발굴) 전자정부센터는 KSP 사업 제언 내용을 정리해서 타 부처와 공유하고, 추후 법제화할 계획이 있음.
- 통일된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위해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을 주제로 후속 KSP 사업을 희망, 전자정부센터 대상 추가 역량강화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6. 역량강화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22년 8월 24일(수) 16:00~18:00, Crowne Plaza Hotel
- 참석자: 안양호(수석고문), 민소연 연구원, 김수민 연구원(이상 KDI), 문명재 교수(연세대), 김병준 교수(국민대), 김현준 교수(고려대), Thavisak Manodham 센터장, Somphayvanh Sengsurinha 부센터장 외 라오스 전자정부센터 및 기술통신부 관계자 약 15명
- 주요 논의 내용
 - (전자정부센터 발표) 2021/22년 KSP 사업은 라오스의 전자 정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 최종보고회 시 논의된 정책 제언을 유관 기관과 공유하고, 추후 최종보고서를 지역별로 배포할 예정임.
 - (역량강화 세미나 소개) 본 세미나는 6개 북부 지방 정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각 지방 정부의 디지털 현황 및 전환 계획을 공유하고 실용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진솔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
 - (라오스 디지털전환 소개) 2021-2040 전자정부 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하고, 10년 주기로 중기 전략을 세워 이행하고 있음.
 - 핸드폰은 95%, 인터넷은 71% 수준의 양호한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3,500만개 이상의 핸드폰 회선이 등록, 데이터 통신의 경우 2G(96%), 3G(93%), 4G(75%) 지역에 보급되어 있음.

- 4개 단계를 거쳐 디지털 전환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부, 기업, 시민의 교점에 전자정부를 도입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정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G-cloud라는 클라우드를 구축,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G-share, G-drive 등의 기타 정부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음.
- 그 외로, E-office, G-chat, G-web, E-mail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사용자가 적으며,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
- 모든 관계자들이 전자정부센터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 공공기관 내 디지털 프로그램 사용을 확대하여야 라오스 전자정부 순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루앙프라방 주)** 전화통신망과 교통 측면에서는 준수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현황)** 공공에서 활용하는 여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온라인 회의 등을 개최할 시 사용할 수 있음.
 - **(제약 요인)** 직원의 지식,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하며,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ICT 장비는 제한적이며, 일부 구청은 문서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인프라가 오래되었고 인터넷을 설치할 예산도 없는 실정임.
 - **(제안)** 모든 공공-민간 부문이 신기술을 사용하여 더 많은 작업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함.
 -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관리 분담을 위해 통일된 전자정부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교육부가 주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함.
 - 루앙프라방 주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자정부 관련 연수에 72명 직원을 파견, 9회 참가해 옴.
 - 온라인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급하고 라오스 지방 내 정부 부처가 기본 정보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아판 주)** 해당 주는 라오스의 북동쪽에 위치, 삼림 면적은 약 74%, 산지 면적은 18%, 논 면적은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임.
 - **(전자정부 현황)**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방 내 공무원 및 시민들의 인식과 접근은 낮은 수준이며, 네트워크, 각 부서의 행정 및 서비스 시스템 등은 디지털화 되지 않음.
 - **(전자정부 효과)** 지방 정부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국가 서비스를 제공, 작업의 효율성은 매우 효과적이고, 보다 투명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정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 녹색 스마트 도시, 전자 농업, 전자 관광 보존, 스마트 건강,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함.
- **(우돔싸이 주)** 해당 주의 전자정부 관련 강점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언급함.
 - **(전자정부 강점)** 광범위한 통신 기반 시설을 구축하였고, 인터넷 사용은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 중앙 정부 외에도 우돔싸이 지방 경찰서는 현재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5가지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상황임.
 - **(전자정부 제약요인)** 주 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관련 기술은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전자정부센터 또는 국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
 -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처 미비, 예산 및 재정 부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 및 관련 인력 부족 등도 주요 제한 요인임.
 - **(극복 계획)** 고속 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 개발, 온라인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사용을 홍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 권장,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 **(퐁살리 주)** 해당 주는 루앙프라방, 베트남, 중국 지방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전체 지역에 15개 민족과 약 6,103명의 공무원이 존재함.
 - **(주 소개)** 퐁살리 기술통신부는 현재 일반 공무원 24명, 여성 9명, 고위직 5명, 중급 직원 1명으로 구성, 부서의 조직 구조는 행정,

조직 및 검사, 디지털 국가 관리 및 사이버 보안, 기술 및 혁신, 우편 및 통신의 4개 부문이 있음.

- **(전자정부 제약요인)** ICT 기술을 활용하는 업무, 담당 인력의 지식과 전문 인력 부족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인프라 또한 상당히 미비한 실정임.
- **(시사점)** 교육스포츠부의 기술 인력과 모든 부서의 ICT 담당 인력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방 차원의 훈련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게오 주)** 해당 주는 라오스 전역에서 가장 소규모 크기의 지역과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관련 인프라와 기술 담당 전문 인력은 다른 주에 비해 상당히 미비한 상황임.
- **(루앙남타 주)** E-office는 1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 이메일 사용자 수는 64명, G-chat 사용자 수는 323명, G-dirve 사용자 수는 31명, 지역 전반으로는 약 112,098개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음.
- **(질의응답)** 라오스 기술통신부 관계자는 한국 연구진들에 지방 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전환을 위해 주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의무 법령을 발의하여 모든 유관 부처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통일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제언
 - 라오스 사이버 보안 시스템 또는 국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완 관련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제시
 - 탈중앙화가 필요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

< 사진 >



역량강화 세미나 단체 촬영

V. 총평

- 본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출장의 목적은 1) 협력부처와 유관 기관 관계자 대상 사업의 최종결과를 공유하고, 2) 협력국 고위정책결정자에 핵심 정책제언 전달 및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노력 당부, 3) 협력부처와 현지전문가 대상 종료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함.
 - 최종보고회 시 라오스 기술통신부 차관에 수석고문과 한국 연구진은 연구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본 KSP 사업에서 도출한 정책 제언이 실제 전자정부 발전 계획 수립에 반영되기를 희망함을 전달
 - KDI는 동 보고회에 주라오스대한민국 대사 참석과 축사를 요청, 이를 통해 협력국에 본 KSP 사업 결과에 대한 파급 효과를 제고하고, 현지 정책 관계자들의 사업 관심도를 향상시킴.
 - 한국 연구진들은 기술통신부와 전자정부센터를 비롯한 교육스포츠부, 외교부, 총리실, 에너지광물부 등에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고, 추가 정책 제언을 제시하여 협력국의 관련 지식과 해결 의지를 제고함.
 - 기술통신부 산하 북부지역 기술통신부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세미나를 실시하여, 한국 연구진들의 전자정부 발전에 대한 한국 경험 공유 및 관련 역량을 제고함.
 - 라오스 6개 북부 지역 기술통신부 관계자는 동 세미나를 통해 각 주별 전자정부 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 본 사업은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현지전문가와 협력부처 사업책임자 및 사업관리자 대상 종료평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사업이해도, 정책반영, 후속사업 계획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지속 모니터링 및 평가함.
- 후속조치사항
 - 본 최종보고회 시 논의된 협력부처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추가 반영하고, 향후 완성된 최종보고서를 협력국과 공유할 예정

VI.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9월 2일: 최종보고서 및 사업종료보고서 제출
- 2022년 10월: 최종보고서 출판